

세상 모든 곳, 사람이 있으면 음악도 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

신경아 지음



저자의 첫 방문지 말리는 블루스 외에 전통 악기 연주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다. 그들은 서양 악기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주법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 요소는 배제하고 완전히 서구화된 우리의 대중음악을 생각해보면,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어느 나라 악기든 자신들의 스타일로 바꿀 줄 아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천연 밀림이나 끝간 데 없이 펼쳐진 사막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북동부 사막지역인 말리는 분리의자인 반군들로 위협한 지역이다. 낙타에 금과 소금을 싣고 상자를 내다 팔던 그 길이 오늘날에는 마약과 무기를 싣고 누비는 길로 변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곳에는 음악이 있다.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다. 리듬을 따라 선율을 따라 세상의 끝까지 찾아간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저자 "음악에 대한 타고난 감수성과 인종과 문화를 가리지 않는 친화력"의 소유자인 신경아 씨가 펴낸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은 사하라와 발칸, 아나톨리아에 대한 음악기행이다.

책 발간은 민속음악에 조예가 있던 PD인 남편이 은퇴하자 함께 음악여행을 떠난 것이 계기였다. 전통음악은 그것이 태어난 땅에서 들을 때 비로소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서울에서 유학하던 오빠가 음반을 잔뜩 가지고 왔다. 팝송, 클래식, 영화음악 음반들이었다. 오빠들 틈에 끼어 들던 음악 중에 내 심금을 울리던 음악이 있었다. 그 음악들이 사이먼과 가펩클의 '엘 콘도르 파사'라거나,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인 것은 도무치 큰 후에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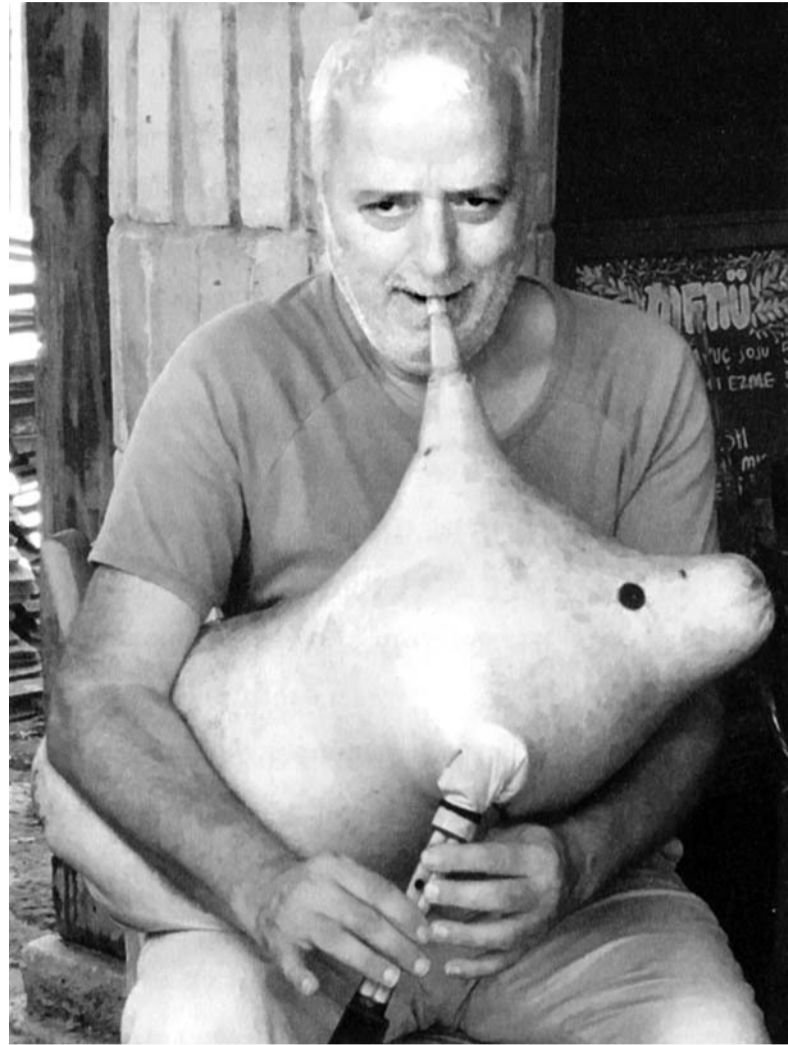
이번 여행지는 사하라 인근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세네갈을 비롯해 발칸 지역인 알바니아와 그리스, 불가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아나톨리아 지역인 터키, 쿠르디스탄도 방문했다.

모로코에는 지역과 민족에 따라 음악이 천차만별이다. 저자에 따르면 도시인들은 아랍팝을 즐기지만 모로코를 대표하는 장르라면 그나와르를 꼽는다. 또한 "민속음악으로는 베르베르인들이 마을잔치에서 부르는 음악인 아흐와시가 아직도 현장에서 연행"된다는 것이다.

터키 역시 장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악이 존재한다. 대체로 투르크 고유의 민속음악이 잘 계승되고 있는 편이

다. 이들의 민속음악에서 중요한 악기는 목이 긴 류트류의 현악기 '바울라라'다. 기타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 가정이나 식당의 벽에 걸려 있을 만큼 대중적인 악기다.

긴 음악여행을 마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이들의 삶과 음악이 스토리가 됐다고. "음악여행은 사람을



관악기 '가이다'로 연주를 하고 있는 비롤씨. 터키어로 '톨롬'이라 하는 이 악기는 염소 가죽으로 바람주머니를 만든다. <문학동네 제공>

찾아가는 여행이다. 아무리 멋진 유적이 즐비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여행지에서는 음악을 찾지 힘들다. 그래서 다음 여행지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학동네·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환을 담은 글이 실렸다. 3부 '동물을 만나는 일'에는 작가가 키우는 고양이 썬싱과 지렁이, 두더지, 야생 동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4부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는 외국인 머느리에 대한 글과 귀농과 귀촌 등에 대한 단상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5부 '집과 길'에는 '흔사 사는 삶', '소중한 1일' 등의 글이 실렸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림을 감상하는 건 큰 즐거움 중의 하나다. '상냥한 우체부', '냉정한 평가를 하세요' 등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내는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진다. 표지로 쓰인 그림의 제목은 '사회의 의무& 맑은 공기'다. <난다·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글 읽는 재미 그림 보는 즐거움

매우 초록

노석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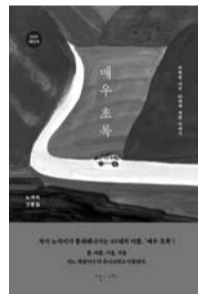
소개할 책으로 이 책을 선택한 건 물론 작가 때문이지만, 책 표지와 제목도 큰 역할을 했다. '매우 초록'이라는 책 제목과 초록색 산을 배경으로, 초록색 숲으로 난 길을 지나는 자동차 한대가 그려진 표지를 보니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저자가 화가이니, 책 속엔 분명 그림도 담겨 있을테고 그러면 글도 읽고, 그림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다 싶었다. 책을 펼치며 즐거운 기대

가 틀리지 않음을 직감했다.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개인 작업과 함께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등을 만들어온 화가 노석미가 펴낸 '매우 초록'은 '20대 후반 도시를 벗어나 초록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산이 보이는 작업실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고양이 썬싱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살고 있는 그녀의 10년 기록이 담긴 그림 산문집이다.

이미 진솔하고 맛깔나는 글쓰기로 알려진 노 작가는 이번 글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익명으로 살기 수월한 도시의 삶과 달리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야 할 일이 많은 시



골에서, 그것도 흔하지 않은 '화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빙그레미소짓게도 한다.

80여편의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 책은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땅과 집'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땅을 구하고 집을 짓는 이야기 담겨 있으며 2부 '정원발'에는 아름다운 6월의 정미와 토마토·마늘 농사, 잡초에 대한 단상, 수확의 기쁨, 월동준비와 봄에 대한 기대 등 계절의

새로 나온 책

▲국민이 만만한가 = 국민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서 공직자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한다. 저자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나고 있다. 또 부패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북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 도덕률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사피엔스·1만7000원>

▲통일, 청춘을 말한다 = 노무현 재단이 10·4 남북 정상선언 12주년을 맞아 기획한 유시민과 도올의 대담을 책으로 엮었다. 대담은 유시민이 묻고 도올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대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유튜브 알라레오에 방송됐다. 책은 방송된 대담을 중심으로 도올이 첨삭과 변조를 덧붙이며 새롭게 재구성했다.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우리에게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돋나우·1만5000원>

▲당당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설득하는 기술 = 일대일로라는 말을 잘하다라도, 막상 중요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입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발표 능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발표 능력을 인정받은 마이 크로스프트 최우수 사원이 당신에게 발표 능력을 단숨에 향상시키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길벗·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는 태양의 아이 = 나는 과학 3권. 태양에서 시작된 에너지의 정의와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과학 그림책.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라는 단어를 들으며 살아간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다. 지구에서의 에너지 순환과 그 쓰임을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폴빛·1만2000원>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 = 책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 전말을 파헤치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알아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또 교섭 단체, 정당, 의원 내각제, 3심 제도 등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각 기관의 주요 업무인 입법과정,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과정과 함께 정부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룬다. <개입나우·1만2500원>



▲1389년 귀 인식표를 단 암소 =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육되는 수백, 수천만 마리 동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동물들이 상품이 아닌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책. 작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착취당하다가 동물피난처로와 여생을 살게 된 동물들을 통해 그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성과 삶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생명임을 보여준다. <생각의길·1만8000원>



▲새하얀 고양이 = 18~30개월의 언어폭발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을 막 익히기 시 작한 아이들이 책 속 주인공과 주거니 받거니 말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고양이의 표정과 행동을 생생하게 그려 언어 표현이 서툰 아이들도 집중해서 볼 수 있다.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책 속 캐릭터와 함께 호흡하는 경험은 일상에 상상력을 더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공주니어·1만3000원>



상용샘점 바로가기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대출기간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상환방식
최대 1,000만원 이내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필요서류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관동지점	충청지점	전남지점	전북지점
문충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	